

## 여자 중학생의 집단따돌림과 심리사회적 적응: 2년 추적연구

이 귀 숙<sup>†</sup>                      정 현 희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여자중학생의 집단따돌림 경험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횡단적·종단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총 226명의 여중생을 대상으로 1학년(1차시기)과 3학년(2차시기) 두 시기에 걸쳐 각각 집단따돌림, 자기효능감,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그리고 교우관계 등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집단따돌림 경험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1차시기에 측정된 집단따돌림 가해-피해경험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높은 집단(군집1),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낮은 집단(군집2),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중간수준인 집단(군집3), 가해경험은 높으나 피해경험은 중간인 집단(군집4)의 네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분류된 집단이 횡단적·종단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높은 학생들(군집1)과 가해경험이 높고 피해경험이 중간인 학생들(군집4)은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낮은 학생들(군집2)에 비하여 횡단적으로는 자기효능감과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및 교우관계에서, 그리고 종단적으로는 외현화 문제와 친구와의 적응 및 공동생활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청소년 발달, 집단따돌림, 심리사회적 적응, 추적연구

---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귀숙, 부산시 서구 부용동 1가 65-1, 글나라교육연구소 상담/심리평가실  
전화 : 051)243-4842, E-mail : lgs4305@hanmail.net

청소년기의 건강한 심리사회적 적응은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학교장면에서 이루어지는 또래관계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김은정, 김인경, 정태영, 2001).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에 보고된 아동과 청소년들의 잇단 자살사건 보도들을 볼 때, 또래 간에 일어나는 집단괴롭힘이나 '왕따' 문제, 혹은 집단따돌림의 정도는 이전보다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민아, 1998). 이제 이러한 학교 폭력과 집단따돌림의 문제는 학교 차원을 떠나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오혜정, 2000).

집단 따돌림(bullying)이란 한 학생이 집단에서 다른 학생의 부정적 행위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Olweus, 1989). 광금주(1999)는 위의 정의에서 부정적 행위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 및 사회적 소외를 포함하는 힘의 불균형, 즉 비대칭적인 세력관계를 전제한다고 하였다. 집단따돌림에 관한 연구들은 모두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또래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또래관계가 훼손될 경우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학교폭력의 한 형태인 집단따돌림에 대해 학술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에서 Heinemann(1972)와 Olweus(1973)의 연구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권준모, 1999). 이후 집단따돌림의 심리사회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

들(구본용, 1997a; 김석진, 1999; 최은숙, 채준호, 2000; Boulton, & Smith 1994; Olweus, 1994; Perry, Kusel, & Perry, 1988) 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특성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변인 가운데 하나는 부정적 자기개념이다(구본용, 1997b; Olweus, 1994; Rigby, & Slee, 1993).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체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개선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단절 또는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역기능의 순환에 놓이게 된다(구본용, 1997b). 안정숙과 신승우(2001)는 집단따돌림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부적응과 정신과적 장애가 발생한 임상군 피해아동의 연구에서 부정적 자기개념을 위험인자로 보고하고 있다.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은 보통의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를 싫어하고(Ladd & Burgess, 2001),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며(Rigby et al., 1993; 김은정 등, 2001), 우울/불안 및 외로움을 느끼고(Olweus, 1993; Perry, Williard, & Perry, 1990), 또한 친밀하지 못한 교우관계를 가짐으로써 실생활의 적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Suzanne, Wendy, Debra, & Jennifer, 2003)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은 성격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평균이하의 자긍심을 가지며 스스로 지적 능력이 낮고, 매력이 없다고 평가하며, 혼자서는 또래들에게 대응할 수 없고, 또래집단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낼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즉, 자신을 무능력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느낀

다(강진령, 유형근, 2000). 또한 집단따돌림 피해자는 일단 피해자가 되면 다시 피해자 경험을 반복하기 쉬운데, 이런 경우에 피해자들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에 대한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Janoff-Bilman, 1992). Lowenstein (1978)은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학교공포증이나, 무단결석, 그리고 자살과 같은 도피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집단따돌림의 피해성향이 가해성향에 비해 좀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Wilcenski, Steegman, Braun, Feeley, Griffin, Horwitz, & Olsen, 1997), 집단따돌림의 가해행동 역시 공격행동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며 이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부적응과 관련된다는 연구들도 있다(DeRosier, Kupersmidt, & Patterson, 1994; Kupersmidt, Coie, & Dodge, 1990). 집단따돌림 가해자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공격성이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보고되었다(박미연, 2000; 이상균, 1998; Bernstein, & Watson, 1997). 즉 공격성이 높은 아동들은 친구들 간의 갈등상황에서 폭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균, 1998). 이 밖에도 Kochenderfer와 Ladd(1996)의 연구에 따르면 집단따돌림 가해자들은 등교회피와 외로움 등을 호소한다고 한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사이의 가해학생 가운데 약 60%가 24세가 될 때까지 전과 1범이 되었으며, 과거의 폭력학생 가운데 35~40%의 학생이 24세가 될 때까지 전과 3범 이상이라는 Olweus(1995)의 연구도 있다(권준모, 1999, 재인용). 박금주, 김의철, 그리고 박영신(1999)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청소년의 일탈행동은 모두 자기조절동기 효능감과 부적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따돌림에 관한 심리사회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자기개념,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친구관계, 우울/불안, 신체화 문제, 사회적 미성숙 등의 내재화 문제와, 비행 및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가해성향과 피해성향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집단따돌림 경험의 가해성향과 피해성향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나 대체로 피해성향이 보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연구결과들(김은정, 김인경, 정태연, 2001; Hodge, Malone, & Perry, 1997; Janoff-Bilman, 1992)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관한 오래된 연구 중 하나인 Olweus(1978)의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자를 수동적 피해자(passive victims)와 도발적 피해자(provocative victims)로 구분하고 있다. 수동적 피해자의 행동양식은 자신이 공격이나 모욕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른 학생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도발적 피해자는 불안한 반응형태와 공격적 반응 형태가 결합된 행동특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권준모, 1999). Olweus(1978)가 구별한 두 가지 유형의 피해집단은 국내에서도 한종철, 김인경, 김은정, 박윤창, 정태연(1999)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Perry 등(1988)도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유형을 저공격적 피해자(low-aggressive)와 고공격적 피해자(high-aggressive)로 구분한 바 있다.

한편, 집단따돌림 유형에 관한 또 다른 연구가 Stephenson과 Smith(1989)에 의해 이루어졌

는데 연구자들은 집단따돌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bullies)는 강하고 단호하며, 쉽게 흥분되며, 공격을 즐기고, 보통정도의 인기와 안정성을 지닌다. 반대로 불안한 가해자는 불안정하며, 학업성적이 낮으며, 인기가 낮은 집단이다. 피해자(victims)는 약하고 자신감이 낮고, 인기도도 낮은 유형이다. 대조적으로 도발적 피해자(provocative victims)는 활동적이며 강하고 쉽게 흥분하고 자신이 지목되는 것을 종종 불평하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가해자/피해자(bully/victims)는 강하고 단호하며, 일반적으로 학급에서 가장 인기가 없으며, 타인들을 가해하며 동시에 자신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불평하는 특성을 지니는 집단이다.

국내에서도 집단따돌림의 가해/피해 경향이 모두 높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이러한 아동들은 점차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상균, 1998; 황성숙, 1998). 특히 최은숙 등(2000)은 가해성향과 피해성향이 모두 높은 아동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가해 및 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내재화 문제를 지니며,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 행동 수준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높게 보고되었다(한종철, 김인경, 2000; Perry, Kusel, & Perry, 1988).

그러나 국내의 집단따돌림 연구에서 가해/피해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연구는 부족하다. 박경숙, 손휘권, 송혜경(1998)은 집단따돌림 가해학생의 유형을 여섯가지로 구분한 바 있는데, 반에서 잘나가는 날나리 아이들, 짓궂거나 장난이 심한 아이들, 약삭빠르거

나 교활한 아이들, 자기 욕을 들었거나 친구에 관한 험담을 들은 아이들, 인기가 많고 친구가 많은 아이들, 지도력이 있고 자기주장이 강한 아이들이 그것이다.

최은숙과 채준호(2000)는 가해/피해 성향을 총점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교차조합(Crosstabulation)하여 가해성향과 피해성향이 모두 높은 집단을 가해-피해집단이라 명명하고, 가해성향만 높고 피해성향은 낮은 집단을 가해집단으로, 가해성향을 낮고 피해성향만 높은 집단을 피해집단으로, 그리고 가해와 피해가 모두 낮은 집단을 일반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 집단의 지각된 양육태도와 특성분노의 표현방식, 그리고 역기능적 신념에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외에 강승호와 민미자(2002)는 집단따돌림 가해학생집단과 피해학생집단, 그리고 일반집단을 사회측정법과 질문지, 담임교사의 관찰 등을 통해 집단유형을 분류한 다음 각 유형의 감성지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집단따돌림에 관한 위의 연구들은 목적이나 연구방법,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고는 있지만, 모두가 집단따돌림이 건강한 청소년기의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며, 이후의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개입하고 나아가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자들(권준모, 1999; 최은숙, 채준호, 2001)도 제안한 바와 같이, 집단따돌림에 관한 종단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집단따돌림의 가해/피해 학생들을 장기간 추적하여 가해/피해성향의 지속성 및 변화단계를 알아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권준모, 199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따돌림의

가해 와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각 하위 유형들의 행동특성과 심리적 적응의 정도를 알아보는 일은 집단따돌림의 예방과 개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 경험을 가해와 피해경험에 기초하여 유형화해보고, 자기효능감과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그리고 교우관계를 중심으로 각 유형간에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어떠한 횡단적·종단적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 연구방법

###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J 여자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01년 7월에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02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약 2년 후인 2003년 7월에 동일한 연구대상에게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15명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1차시기와 2차시기의 쌍이 맞지 않는 설문지와 응답이 누락되거나 성실하지 않은 설문지 등을 제외한 총 226명의 설문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 측정도구

#### 집단따돌림 행동검사

집단따돌림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춘재와 광금주(1999)가 Neary와 Joseph(1994)의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척도(Bulling-Behavior Scale), Callaghan

과 Joseph(1996)의 또래괴롭힘 피해척도(Peer Victimization Scale)를 기초로 하여 개발한 집단따돌림 행동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가해경험 6문항, 피해경험 6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어의차이 척도로서 집단따돌림의 가해와 피해 경험을 판단하는 서로 반대되는 양극단의 문항을 4등급으로 제시한 후 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등급에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내적합치도는 .77로 보고되고 있으며(이춘재, 광금주, 1999) 본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가 .79였다.

####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홍혜영(1995)이 Sherer,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 Rogers(1982)가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The Self Efficacy Scale)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 17문항과 대인관련 사회적 기술 등의 요소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 6문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그렇다/아니다의 2점척도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81,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60으로 나타났다.

####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

심리적 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오경자, 하은혜, 이혜란, 홍강의(2001)가 Achenbach(1991)의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YSR: Youth Self Report)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 척도(Korean-Youth Self Report: K-YSR) 중 문제행동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위축, 신체화 증상, 우울/불안, 주의집중, 사고의 문제, 사회적 미성숙, 비행, 공격성 등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위축과 우울/불안, 그리고 신체화 증상은 내재화 문제를, 비행과 공격성은 외현화 문제를 구성한다. 각 문항은 3점척도(0: 전혀없다, 2: 자주 혹은 심한 경우)의 총 1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적 합치도는 .63에서 .85로 보고되고 있다(오경자 등, 2001).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50에서 .61로 나타났다.

#### 교우관계검사

여자중학생의 교우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형태(1989)가 제작한 한국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척도 가운데 교우관계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친구의 유무와 신뢰도 6문항, 교제의 지속성 6문항, 친구간의 적응 5문항, 친구와의 공동생활 3문항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식(1: 그렇지 않다, 4: 그렇다)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우관계검사의 반분신뢰도는 .288에서 .764이고, 3주 간격을 두고 재검사를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47에서 .76으로 보고되었다(김형태, 1989).

#### 절차 및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구시에 소재한 J여자중학교 1학년 전체(8학급)를 대상으로 2001년 7월과 2003년 7월에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답한 것과, 1차시기와 2차시기 쌍이 맞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총 226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1학년과 3학년의 자기효능감, 교우관계, 심리적 부적응을 빈도분석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집단따돌림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1차시기(1학년)의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기준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분석으로 분류된 집단의 유형별로 1학년 때(횡단적)와 3학년 때(종단적)의 집단따돌림 경험, 자기효능감, 심리적 부적응, 그리고 교우관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변량 분산분석과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 변인들의 학년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이 시기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따돌림의 가해경험은 1차시기에 비해 2차시기에서 유의하게 낮아졌으나 피해경험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집단따돌림의 가해경험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줄어들 수 있으나 피해경험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모두에서 매우 유의미한 시기별 차이를 보였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

표 1. 변인들의 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결과

변 인	1학년(n=226)	3학년(n=226)	t
	M (SD)	M (SD)	
<b>집단따돌림</b>			
가해경험	11.83(3.30)	10.89(2.49)	3.56***
피해경험	10.84(3.08)	10.35(2.42)	1.78
<b>자기효능감</b>			
일반적 자기효능감	10.46(3.99)	8.38(3.81)	7.64***
사회적 자기효능감	3.89(1.59)	4.31(1.77)	- 3.28***
<b>심리적 부적응</b>			
내재화 문제	15.01(10.53)	14.63(9.15)	.54
외현화 문제	11.93(7.78)	12.83(6.19)	2.03*
<b>교우관계</b>			
친구의 유무와 신뢰도	19.91(3.50)	19.56(3.64)	1.42
교제의 지속성	17.08(2.33)	18.8(2.93)	-7.73***
친구간의 적응	14.05(2.30)	14.04(2.40)	.07
친구와의 공동생활	9.35(1.59)	9.31(1.63)	.29

\*  $p < .05$ , \*\*\*  $p < .001$ .

은 낮아지는 경향을,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심리적 부적응에 있어서는 내재화문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외현화 문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교우관계에서는 교제의 지속성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친구의 유무와 신뢰성, 친구간의 적응과 공동생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 집단따돌림 경험유형 분류를 위한 군집분석

본 연구에서는 여자중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을 가해/피해 경험에 따라 분류해보기 위하여

1차시기에 측정된 가해/피해 경험을 기초로 하여 K-Means 방식으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자 중학생의 집단따돌림 경험의 가해/피해 경험 유형은 네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군집 1의 학생은 29명으로 전체의 12.8%를 차지하였으며,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군집 2의 학생은 65명(28.8%)으로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낮은 특징을 보였다. 전체의 38.9%(88명)를 차지해 가장 많은 학생이 해당하는 군집 3은

표 2. 집단따돌림 가해/피해 경험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및 군집간 차이검증

변인	군집1(n=29)	군집2(n=65)	군집3(n=88)	군집4(n=44)	전체(n=226)	F	사후검증
1차 시기 가해경험	15.55(1.86)	8.02(1.81)	11.63(1.22)	15.43(1.48)	11.83(3.30)	268.57***	1,4>3>2
1차 시기 피해경험	15.97(1.90)	7.48(1.44)	11.37(1.74)	11.34(1.55)	10.84(3.08)	188.57***	1>3>4>2

군집1: 가해고-피해고, 군집2: 가해저-피해저, 군집3: 가해중-피해중, 군집4: 가해고-피해중

\*\*\*  $p < .001$ .

집단따돌림 가해와 피해가 모두 평균수준 즉,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4의 학생들은 전체 대상자 가운데 44명(19.5%)이 해당하며 가해경험은 높은 반면 피해경험은 중간정도의 수준을 가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 같은 군집들 간의 차이는 군집 1과 군집 4의 가해경험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경험유형간 비교를 위한 변량분석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별로 1차시기에 심리 사회적변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군집 1은 다른 군집에 비해 자기효능감, 심리적 부적응 및 교우관계에 있어서

표 3. 1차시기 변인에 나타난 집단따돌림경험 유형간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변인	군집1(n=29)	군집2(n=65)	군집3(n=88)	군집4(n=44)	전체(n=226)	F	사후검증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7.59(4.72)	11.08(4.07)	10.88(3.54)	10.61(3.53)	10.46(3.99)	6.28***	2,3,4>1
사회적 자기효능감	3.24(1.48)	3.95(1.68)	3.97(1.63)	4.09(1.38)	3.89(1.59)	1.97	
심리적 부적응							
내재화 문제	20.93(14.23)	12.92(9.15)	13.57(8.84)	17.09(11.27)	15.01(10.53)	5.32***	1,4>2,3
외현화 문제	16.97(7.08)	10.57(5.14)	13.16(6.85)	18.43(10.22)	13.93(7.78)	12.33***	1,4>2,3
교우관계							
친구의 유무와 신뢰도	17.97(4.67)	20.40(3.24)	19.97(3.33)	20.36(2.93)	19.91(3.50)	3.81*	2,4>1
교제의 지속성	15.62(2.96)	17.97(2.19)	17.13(2.01)	16.64(2.14)	17.08(2.33)	8.20***	2,3>1,4
친구간의 적응	12.69(2.55)	14.58(1.94)	14.02(2.11)	14.20(2.71)	14.05(2.31)	4.83**	2>1
친구와의 공동생활	8.90(1.70)	9.91(1.52)	9.27(1.40)	9.00(1.77)	9.35(1.59)	4.45**	2>1,4

군집1: 가해고-피해고, 군집2: 가해저-피해저, 군집3: 가해중-피해중, 군집4: 가해고-피해중

\*  $p < .05$ . \*\*  $p < .01$ . \*\*\*  $p < .001$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따돌림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높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심리사회적으로 부적응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군집 1은 군집 2, 3, 4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심리적 부적응의 경우에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모두 군집 1과 4가 군집 2와 3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즉, 집단따돌림의 가해성향과 피해성향이 모두 높은 집단과 가해경험만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두 집단에 비하여 위축, 우울/불안, 신체화

증상 등의 내재화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군집 1은 대체로 다른 군집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친구의 유무와 신뢰도에 있어서는 군집 2와 4가 군집 1에 비해 높은 점수를, 교제의 지속성에 있어서는 군집 2와 3이 군집 1과 4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친구간의 적응에 있어서는 군집 2가 군집 1보다 높은 적응점수를, 친구와의 공동생활에 있어서는 군집 2가 군집 1과 4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즉, 집단따돌림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높은 집단은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낮은 집단에 비하여, 신뢰로운 친구관계, 친구관계의

표 4. 2차시기 변인에 나타난 집단따돌림경험 유형간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변 인	군집1(n=29)	군집2(n=65)	군집3(n=88)	군집4(n=44)	전체(n=226)	F	사후검증
<b>집단따돌림</b>							
가해경험	13.46(2.35)	9.64(1.98)	10.57(2.27)	10.63(1.74)	10.89(2.49)	34.55***	1>2,3,4
피해경험	12.92(2.30)	8.97(1.86)	9.55(1.77)	10.61(1.87)	10.35(2.42)	43.94***	1>4>2,3
<b>자기효능감</b>							
일반적 자기효능감	7.28(4.51)	9.18(3.65)	8.05(3.80)	8.48(3.43)	8.36(3.81)	2.04	
사회적 자기효능감	3.79(2.01)	4.69(1.65)	4.07(1.69)	4.55(1.86)	4.31(1.77)	2.69*	
<b>심리적 부적응</b>							
내재화 문제	15.17(9.40)	14.29(8.46)	15.57(9.74)	12.89(8.76)	14.63(9.15)	.90	
외현화 문제	14.26(8.66)	11.00(5.41)	12.26(5.29)	15.73(5.98)	12.83(6.19)	6.25***	4>2,3
<b>교우관계</b>							
친구와 유무와 신뢰도	18.90(5.17)	19.77(3.25)	19.09(3.61)	20.64(281)	19.56(3.64)	2.19	
교제의 지속성	18.24(2.84)	19.20(2.88)	18.63(3.11)	18.93(2.74)	18.80(2.94)	.88	
친구간의 적응	13.00(3.34)	14.11(2.00)	13.90(2.26)	14.89(2.24)	14.04(2.40)	3.91*	4>1
친구와의 공동생활	8.52(2.44)	9.83(1.27)	9.55(1.29)	8.61(1.67)	9.31(1.63)	8.56***	2,3>1,4

군집1: 가해고-피해고, 군집2: 가해저-피해저, 군집3: 가해중-피해중, 군집4: 가해고-피해중

\*  $p < .05$ . \*\*\*  $p < .001$ .

지속성과 적응, 그리고 친구와 공동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차시기의 집단따돌림 유형에 따라 2년 후의 집단따돌림 행동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따돌림 가해 경험은 군집 1이 군집 2, 3, 4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경험은 군집 1, 군집 4, 그리고 군집 2, 3의 순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따돌림 가해와 피해경험 모두 높은 학생들(군집 1)은 2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해경험을 하는 반면, 가해 경험은 높으나 피해경험이 중간인 군집 4의 학생들은 3학년이 되었을 때 가해경험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피해경험이 비교적 더 높은 학생들(군집 1, 표 2 참고)이 학년이 올라가도 가해와 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군집 4는 3학년(2차시기)이 되었을 때에 가해성향이 낮거나 중간인 집단에 비해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군집 1과 군집 4는 친구와의 공동생활에서 유의미한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즉, 집단따돌림 가해성향이 높은 학생들과 가해 및 피해성향이 높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스스로 또래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우관계의 친구간의 적응에서는 군집 4는 군집 1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적응도를 보여주었다.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중학생의 집단따돌림 경험을 유형화해 보고, 유형에 따라 횡단적·종단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를 위하여 226명의 여자 중학생에게 1학년 7월에 집단따돌림, 자기효능감과 내재화문제, 외현화 문제, 교우관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약 2년 후에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1차시기의 집단따돌림의 가해 및 피해경험을 기초로 유형별로 분류되었으며, 유형에 따라 횡단적·종단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의 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의 결과에서 여자 중학생들의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은 비교적 가변적인 반면, 피해경험은 2년이 지난 후에도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단 따돌림의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라는 다른 연구들(김은정, 김인경, 정태연, 2001; Janoff-Bilman, 1992; Wilczenski et al., 1997)과 일치한다.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이와 같이 잘 변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박인학(2003)은 피해성향이 큰 아이들이 친구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존, 집착을 가짐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의식하게 되어 상대방의 행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실망하고 쉽게 상처를 받으며, 토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비록 이들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또래들이 이에 대한 긍정적 보상과 강화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Hymell, Wagner, & Butler, 1990) 일단 피해자가 된 후에는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고 발전시켜 나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DeRosiere, Kupersmidt, & Peterson, 1994).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자살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의 발생 등의 극적인 사례 외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시기의 이런 경험들은 인생의 전 과정에 걸친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김교헌, 왕소정, 2000).

둘째, 본 연구에서는 1차시기의 집단따돌림의 가해/피해경험을 기초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높은 집단(군집1),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낮은 집단(군집2),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모두 중간수준인 집단(군집3), 그리고 가해경험은 높고 피해경험은 중간인 집단(군집4)의 네 집단으로 분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분류는 최은숙과 채준호(2000)이 교차조합을 통해 시도한 분류(가해-피해집단: 가해성향과 피해성향이 모두 높은 집단, 가해집단: 가해성향만 높고 피해성향은 낮은 집단, 피해집단: 가해성향은 낮고, 피해성향은 높은 집단, 일반집단: 가해와 피해성향이 모두 낮은 집단)와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최은숙과 채준호(2000)의 분류는 총점의 중앙값을 중심으로 교차조합(Crosstabulation)하여 이루어진 반면, 본 연구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진 점에서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강승호와 민미자(2002)나 박경숙 등(1998) 등의 분류와는 분류방법상의 차이로 인해 비교의 큰 의미는 없

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유형분류 가운데 특이한 것은 가해성향만 높고 피해성향은 낮거나, 피해성향만 높고 가해성향은 낮은 집단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피해만을 경험하는 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해경험 없이 피해만을 경험하는 수동적 피해자(passive victims)는 그 숫자가 매우 소수인 반면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동시에 가지는 도발적 피해자(provocative victims)가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한 Olweus(197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분류된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가지 분류집단 간에 피해경험에서는 모두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가진 반면, 군집 1과 군집 4의 학생들 간에는 가해경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군집 1과 군집 4의 학생들은 모두 가해경험이 높으나 군집 1은 피해경험도 함께 높으며, 군집 4는 피해경험은 중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은숙과 채준호(2000)의 연구에서 가해-피해집단은 피해만을 경험하는 집단에 비해 훨씬 더 높은 피해경험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군집 1과 같은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추세라고 보고한 연구들(이상균, 1988; 황성숙, 1998)을 고려할 때, 최은숙과 채준호(2000)의 연구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집단따돌림의 경험유형별로 시기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변량분석에서 1차시기에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

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집단따돌림의 경험 유형에 따라 여자중학생들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단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변인들에 관한 많은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구본용, 1997a; 구본용, 1997b; 김석진, 1999; 최은숙과 채준호, 1999; Boulton & Smith., 1994; Olweus, 1994; Perry, Kusel, & Perry, 1988).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군집 1의 학생들이 다른 군집에 있는 학생들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1을 형성한 학생들의 특성은 피해성향이 높은 것으로써 이는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이 자기가 매력 없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믿음으로써 대인관계의 단절을 낳게 된다는 구본용(1997b)의 결과 등에서도 지지 받고 있다.

심리적 부적응에 있어서는 군집 1과 4의 학생들이 군집 2와 3의 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이 우울/불안 및 외로움을 보인다는 김은정, 김인경, 정태연(2001), Olweus(1993), Suzanne 등(2003), 그리고 Perry, Kusel과 Perry(199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이들은 외현화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므로, 높은 공격성과 비행을 드러냄으로써 학교에 부적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Kochenderfer 등(1996)은 집단따돌림 가해자들이 등교회피를 하면서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였다.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가해와 피해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낸 군집 1의 학생들은 다른 군집 특히, 가해와 피해가 모두 낮은 군집 2

의 학생들과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였다. 즉, 군집 1의 학생들은 군집 2의 학생들에 비하여 친구를 만들고 유지하는 정도 및 신뢰도, 교제의 지속성, 친구간의 적응, 공동생활 모두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발달궤도를 살펴보고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를 제시하고자 했던 Suzanne 등(200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에서 심리적인 불안과 또래관계의 낮은 질이 집단따돌림으로 이끄는 위험요소라고 하였다.

넷째, 집단따돌림의 경험유형별로 시기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변량분석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여자 중학생들은 2년 후에 외현화 문제와 친구간의 적응 및 공동생활에서 각각 집단간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이한 현상은 외현화 문제의 집단간 차이를 보다 명료히 하고자 사후분석을 하였을 때, 군집 4(가해고-피해중)가 군집 2(가해저-피해저)와 3(가해중-피해중)에 비해 여전히 외현화 문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군집 1(가해고-피해고)은 외현화 문제가 줄어들었다는 점이었다. 군집 4는 또한 군집 1과 더불어 군집 2와 3에 비하여 친구와의 공동생활에서는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는 한편 친구간의 적응에서는 군집 1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적응도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볼 때 군집 4에 대해 새로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군집 4는 가해경험이 높고 피해경험은 중간정도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으로 Perry, Kusel과 Perry(1988)의 개념으로 말하면, 매우 공격적인 피해자(high-aggressive victims)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군집 4는 군집 1과는 가해

경험은 유사하게 높으나 피해경험은 적은 특성을 지닌다. 이는 Olweus(1993)의 집단따돌림 유형 가운데 전형적인 가해자(typical bullies)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다. 집단따돌림 가해자는 내적으로 충동 통제력이 부족하며, 외부 자극에 대해 통제력이 약하고, 과잉 반응하는 경향이 높으며, 과거의 즐거운 경험을 잘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이춘재, 1999), 폭력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충동성이 높으며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Bjorkqvist, Ekman, & Laerspetz, 1982)는 연구결과들을 볼 때, 군집 4의 학생들이 외현화 문제(비행과 공격성)를 빈번히 보이면서도 친구와의 적응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이와 같은 가해자의 특징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집단따돌림 가해집단이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낮으나 친구의 지원과 결속의 정도는 높다는 이춘재와 박금주(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남자 청소년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폭력에 대한 대처효능감이 증진되는데 비하여 여자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박영신과 김의철(2001)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피해성향은 중간정도이나 가해성향이 높은 이와 같은 학생들에 대한 중단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차시기에 비하여, 2차시기에는 각 군집별로 집단따돌림 유형 간에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이 줄어들었다. 즉, 1학년때 속해진 군집에 따라 사회적 효능감과 내재화 문제, 그리고 친구와 유무와 신뢰도 및 교제의 지속성에서 군집별

로 차이를 보였다 하더라도, 3학년 때에는 위변인들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시기가 아직 인격과 대인관계가 완성된 시기가 아니라 성숙되어 가는 과도기에 있음과, 또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발달단계임을 고려할 때, 집단따돌림이 예방되고 적절히 개입되어야 함도 물론이지만 모든 경우의 집단따돌림 현상이 병리적이고 치명적으로만 해석될 필요는 없음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아울러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여자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집단 따돌림 유형에 관하여는 고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성차에 따른 집단 따돌림 유형을 고찰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여자중학생의 집단따돌림 유형에 따라 2년간 심리사회적 적응을 추적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DeRosier 등(1994)이나 Kupersmidt, Coie와 Dodge(1990)의 연구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유형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하여 고찰하는 정도에서 진행되었으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집단따돌림을 중재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집단따돌림 경험유형에 따라 종단적으로 나타난 심리사회적 적응의 변인들을 고려할 때에, 중학교 초기에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격성과 비행의 외현화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하여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자기표현 훈련과 자기주장 훈련, 그

리고 친구들과의 공동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대인관계 훈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강승호, 민미자 (2002).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과 주도하는 학생 및 일반 학생의 성격특성과 감성지능 비교연구. 한국교육학회지, 40(2), 143-168.

강진령, 유형근 (2000). 집단괴롭힘. 학지사.

곽금주 (1999). 왕따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 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학술대회 발표원고.

곽금주,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 문화의 형성요인 탐색: 비행과 우울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111-121.

권준모 (1999). 국내외 집단따돌림 연구방법의 개관.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45-56.

구본용 (1997a). 청소년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청소년 상담문제연구보고서, 29, 청소년 대화의 광장.

구본용 (1997b).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 대화의 광장.

김교현, 왕소정 (2000). 학부모와 교사가 지각하는 집단따돌림 현상의 원인과 대책 및 배척받는 아동이 심리적 특성,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7, 85-107.

김석진 (1999).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 실태와 관련요인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 김인경, 정태연 (2001).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집단의 심리적 취약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45-257.

김형태 (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경숙, 손희권, 송혜경 (1998). 학생의 왕따 현상에 따른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서, 98-119.

박미연 (2000). 초등학교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영신, 김의철 (2001).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 63-89.

박인학 (2003). 초등학교의 집단따돌림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논문집, 28, 7-54.

안정숙, 신승우 (2001). 집단따돌림 피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관련된 위험인자와 보호인자. 신경정신의학, 40(6), 1166-1173.

오경자, 하은혜, 이혜란,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오혜정 (2000). 집단 괴롭힘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및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민아 (1998). 초등학교의 집단 괴롭힘 개입 유형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균 (1998).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춘재 (1999).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접

- 근. 1999년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학교폭력의 학술적·사회적 대안, 9-25.
- 이춘재, 광금주 (1999).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연구: 실태, 특성 및 대책.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보고서.
- 최은숙, 채준호 (2000).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인간이해*, 21, 109-137.
- 한종철, 김인경, 김은정, 박윤창, 정태연 (1999). 또래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1차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초록집.
- 한종철, 김인경 (2000). 또래 따돌림에 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성숙 (1998). 학교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Bernstein, J. Y., & Watson, M. W. (1997). Children who are targets of bullying: A victim patter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483-498.
- Bjorkqvist, K., Ekman, K., & Lagerspetz, K. (1982). Bullies and victims: Their ego picture, ideal picture and normative ego pictur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23, 307-313.
- Boulton, M. J., & Smith, P. K. (1994). Bully/Victim problems in middle-school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1), 161-163.
- Callaghan, S., & Joseph, S. (1995). Self-concept and peer victimization among school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1), 161-163.
- DeRosier, P., Kupersmidt, J., & Patterson, C. J. (1994). *Aggression and peer victimization as predictors of self-report of behavioral and emotional adjustment*. Poster session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Conference on Human Development Pittsburgh, PA.
- Heinemann, P. P. (1972). *Mobbing-gruppvald bland barn och vuxna*. Stockholm: Natur och Kultur.
- Hodge, E. V. E., Malone, M. J. Jr., &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 Psychology*, 33, 1032-1039.
- Hymell, S., Wagner, E., & Butler, L. J. (1990). Reputational bias: view from the peer group.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156-186).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noff-Bilman, R. (1992). *Shattered Assumption: Towards a New Psychology of Trauma*, NY: Free express.
- Kochenderfoer B. J., & Ladd, G. W. (1996). Peer victimization: Cause or consequence of school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305-1317.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 (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hip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teven R. Asher & John D. Coie(ed.). *Peer Rejection in*

-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Ladd, G. W., & Burgess, K. B. (2001). Do Relational Risks and Protective Factors Moderate the Linkages between Childhood Aggression and Early Psychological and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2, 1579-1601.
- Lowenstein, L. F. (1978). "Who is the bully?".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y Society*, 31, 147-149.
- Neary, A., & Joseph, S. (1994).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and depression among school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 183-186.
- Olweus, D. (1973). Personality and aggression. In J. K. Cole & D. D. Jensen(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7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 C.: Hemisphere Press(Wiley).
- Olweus, D. (1989).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K. Rubin and D. Pepier(Eds), *The Developmental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Erlbaum.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Blacwell.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ble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17-1190.
- Perry, D. G., Kusel, S. J., & Perry, C. L. (1988) Victim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7-814.
- Perry, D. G., Williard, J. C., & Perry, L. C. (1990). Peers' perception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s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 Rigby, K., & Slee, P. T. (1993).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 among Australian children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1), 33-42.
- Sherer, M., Maddux, J.,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 Jacobs, B.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51, 663-671.
- Stephenson, P., & Smith, D. (1989). Bullying in the junior school. In D. P. and D. A. Lane(Eds.), *Bullying in schools*. Cyncoed Road, Cardiff: CF26XD.
- Suzanne, G., Wendy, M. C., Debra, P., & Jennifer, C. (200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Victimization: Identifying Risk and Projective Factors. *Journal of Applied School Psychology*, 19(2), 139-156.
- Wilczenski, F. L., Steegman, R, Braun, M., Feeley, F., Griffin, J., Horowitz, T., & Olson, S. (1997) Children as victims and victimizers: Interventions to promote 'fair play'.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8, 81-89.
- 원 고 접 수 일 : 2005. 3. 20.  
수정원고접수일 : 2005. 6. 7.  
게 재 결 정 일 : 2005. 6. 10.

## Middle School Girls' School Bullying Experience and Psychosocial Adjustment: A Two-Year Follow-up Study

Guisuk Lee

Hyunhee Chung

Department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to classify bullying experience types and examine the effects of school bullying experience on Middle school girls' psychosocial adjustment. A total 226 girls were surveyed at two points - at 1st grade(Time 1) and 3rd grade(Time 2). Measurements included School Bullying Scale, Self-Efficacy, K-YSR, and Peer Relationship Scale. Bullying types were explored using Cluster analysis on the basis of bullying and victim scores at 1st grade. Cluster-analysis identified four distinct types of bullying experience(C1: high bullying-high victimization, C2: low bullying-low victimization, C3: moderate bullying-moderate victimization, C4: high bullying-moderate victimization). Analysis of variance indicated that C1 and C4 were significantly differentiated by self-efficacy,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nd peer relationship in cross-sectional analysis. In longitudinal analysis, C1 and C4 were significantly differentiated by externalizing problems, peer adjustment, and daily school community life.

*Keywords* : adolescent development, bullying, psychosocial adjustment, follow-up study